

최신원 회장 “한국·브라질 협력 증진 계기 되길”

SK네트웍스

한·브라질 비즈니스포럼 개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7차 제7차 한국·브라질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했다.

한국·브라질 소사이어티가 개최한 이번 포럼은 현지 브라질 로펌 및 컨설팅 기관, 상파울루대학교 등에서 최고의 브라질 전문가들을 초청해 브라질의 비즈니스 환경 및 유망 진출 분야 등을 논의했다.

한국·브라질 소사이어티는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브라질 간 교류 증진과 협력 강화 그리고 우호 관계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1년 6월에 설립된 순수민간단체로, 최신원 회장이 한국·브라질



소사이어티 회장을 맡고 있다.

제1부에서는 10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브라질의 정치경제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했

다. 제2부에서는 세계 3대 경제통합체인 남미 공동시장(MERCOSUR)과의 무역협정 협상을 앞두고 남미공동시장이 제공하는 막대한 비즈니스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제3부에서는 최근 브라질의 제도(법)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대비한 우리기업의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최신원 한국브라질 소사이어티 회장은 포럼개최와 관련 “지난 2012년부터 개최해온 포럼이 한·남미공동시장(MERCOSUR) 무역협상 개시를 앞두고 시작되는 만큼 남미공동시장의 주축인 브라질 진출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성공적인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un@metroseoul.co.kr

동서식품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시상식

동서식품이 후원하고 한국기원이 주최한 '제19기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의 시상식이 16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됐다.

시상식은 수상자인 조한승 9단, 박영훈 9단을 비롯해 이광복 동서식품 사장, 유창혁 한국기원 사무총장 등 대회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우승자인 조한승 9단은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첫 우승 트로피와 함께 우승 상금 5000만원을 수상했다. 통산 세 번째 우승에 도전했던 박영훈 9단은 아쉽게 결승에서 패하며 준우승 트로피와 상금 2000만원을 받았다.

특히 이번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은 이번 대회부터 본선 24강전에서 32강전으로 규모를 확대해 바둑계 및 팬들에게 시작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으며, 조한승 9단이 첫 우승을 차지하며 대미를 장식했다.



1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9기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시상식에서 동서식품 이광복 사장(왼쪽)과 우승자 조한승 9단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동서식품

/박인용 기자 parkiu7854@

SKB 경찰청·연세대와 ‘청소년 영상단’ 협약

16일 서울·인천 경찰청 대강당서 열려

SK브로드밴드는 16일 서울경찰청, 인천경찰청, 연세대학교와 손잡고 서울지방경찰청 대강당과 인천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각각 ‘청소년 영상단’ 발대식을 열었다.

‘청소년 영상단’은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지역사회 내 치안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 유도,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만들어졌다. 서울 및 인천지역 중·고등학교 600여명과 연세대학교 학생, 경찰 등을 합쳐 총 700여명 규모로 구성됐다.

이날 ‘청소년 영상단’ 발대식은 서울지역과 인천지역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오전에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서울지역 발대식에는 중·고등학생 200여명과 경찰(피해자담당경찰, 인권담당경찰 등)을 비롯해 250여명이, 오후에 인천경찰청에서 진행된 인천지역 발대식에는 중·고등학생 400여명과 경찰을 비롯해 450여명이 참여했다.

발대식 이후 서울지역에서는 오는 30일 영상단을 대상으로 영상제작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며, 인천지역에서는 이달 말까지 지역경찰서 현장탐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내달 9



SK브로드밴드는 16일 ‘청소년 영상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오른쪽 첫번째부터) 이재호 SK브로드밴드 이재호 경영지원부부장, 정창배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남석인 연세대학교 고등교육혁신원 센터장.

/SK브로드밴드

일부터 이틀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영상단 캠프를 진행하며, 이후 1차 영상제작, 중간 평가회, 2차 영상제작, 영상제 등의 순서로 활동이 이어지게 된다.

/김나인 기자 silni@

에쓰오일 소방관 부부 초청해 ‘休캠프’

에쓰오일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소방관 부부 70쌍을 초청해 15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에쓰오일 소방관 부부 휴(休) 캠프’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방관의 사기진작과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S-OIL의 ‘소방영웅지킴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교대 근무와 잦은 현장 출동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소방관들에게 부부애를 돈독히 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의 장기 근무 현장직 소방관들을 우선 선발했다. 캠프에 참가한 소방관 부부들은 성산일출봉, 자연 휴양림 등 제주 명소 방문, 아쿠아리움 관람, 국토 최남단인 마라도에서 제주 문화 체험 등을 하며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

/구서운 기자 yuni2514@

오늘의 운세 5월 17일 (음 4월 3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새로 시작한 일에 기대를 많이 했지만 실리는 없다. 60년생 급할수록 자중하고 서두르지 말자. 72년생 친척과 대화하다 사소한 불화가 생긴다. 84년생 인수 운이 있어 교섭이나 거래가 순조롭게 처리 된다.
- 말** 54년생 한단계 발전하는 운이지만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66년생 과거에 배운 숨은 공덕이 들어오는 인덕이 있는 날이다. 78년생 재물이 상승하여 금전 융통 원활하다. 90년생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으니 포기하지 말자.
- 소** 49년생 뜻밖의 일로 육신이 고달프니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다. 61년생 과유불급이니 과다한 영양제 복용을 중지하라. 73년생 처음부터 시작이 잘되니 마무리도 잘된다. 85년생 집안 주변이 시끄러우니 두문불출이다.
- 양** 55년생 타인의 사정을 헤아려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67년생 맨 손에 빈 주머니로 시작하지만 끝은 장대하다. 79년생 남보다 부지런해야 계획대로 성취된다. 91년생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여 몸의 컨디션이 저조하다.
- 호랑이** 50년생 시작이 반이니 우선 착수하여 밀고나간다. 62년생 창의력이 발휘하여 계획 구상이 좋다. 74년생 취임이 대길하니 다시 도전 하자. 86년생 굳은 의지를 발휘하여 조직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된다.
- 원숭이** 56년생 동업자가 뒷주머니 행기는 것을 주의깊이 살펴보자. 68년생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처음 시작하는 시기다. 80년생 방심한 태도가 술과 늦잠을 부른다. 92년생 바쁜 하루지만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
- 토끼** 51년생 상하 공과 사를 구별하여 올바르게 일 처리할 때. 63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즐거운 날 파이팅하자. 75년생 건강을 지키는 것을 우선시 하자. 87년생 가화만사성이니 가정의 화목이 성공의 요소가 된다.
- 닭** 57년생 꿈 해몽이 좋으니 횡재수가 있다. 69년생 남의 일에 끼여들어 관재구설수가 있는 하루. 81년생 바늘에 실 가듯이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으니 꾸준히 노력하라. 93년생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만사가 길운으로 진행되는 하루.
- 돼지** 52년생 자신의 특기를 큰 자랑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별거 아니다. 64년생 변화의 운이 들어오니 망설이지 말자. 76년생 성공의 기미가 보이니 적극 밀어붙일 때다. 88년생 넓은 시야로 바라볼 때 새로운 것이 보인다.
- 개** 58년생 부러울 것이 없는 하루. 70년생 위에서 끌어주고 밑에서 받쳐주니 소망 대길 수. 82년생 청명한 날씨에 바람도 잔잔하니 산책 출퇴근 때 94년생 귀인을 찾으려면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니 가까운 곳을 가 보아라.
- 돼지** 59년생 현재는 힘들어도 항상 내일을 준비하라. 71년생 무책임한 행동은 시뮬거리를 만들게 된다. 83년생 굶어 부스럼하는 일은 손을 떼야 한다. 95년생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보다 장래의 큰 이득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김상회의四季

미래를 예약하는 것

자식은 부모 걱정을 하지 않아도 부모는 자식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더할 나위 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상담을 청한 한 어머니가 한숨을 앞세우고 들어온다. 아들은 명문대는 아니어도 서울의 이름 있는 대학을 나왔다. 남들은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이곳저곳에 원서를 넣고 다닐 때 아들은 서울을 떠났다. 아들이 간 곳은 시골 면소재지 수준의 마을이었다. 선배의 농산물 가게에서 일을 시작한 것이다. 부모가 기를 쓰고 말렸지만 아들은 뜻을 꺾지 않았다. 아들이 시골에 간 뒤로 어머니는 걱정 속에 살고 있다. 아들의 사주는 편재격인데 편재는 상인을 나타낸다. 사주에서 재왕신왕하면서 재성이 손상되지 않으면 큰 상인이 되는 운세를 탄다. 아들은 재성이 완전하니 상인으로 기세를 펼치게 될 것이다. 이런 사주는 무역이나 가공 또는 판매업종에 종사하면 잘 풀린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렇게 힘들게 살면서 직장도 변변치 않고 미래도 캄캄한 걸요.” 어머니는 부모 된 입장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아들의 모습만 보고 있었다. 그러나 더 멀리 보는 필자의 눈으로는 부모가 보는 길 너머에 있는 탄탄대대가 보였다. 그래도 걱정을 멈추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미국 대통령들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런 자리에 오른 사람도 처음에는 별 것 아닌 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닉슨 대통령은 가족이 운영하는 잡화점에서 허드렛일을 했었고 포드 대통령은 햄버거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해변에서 인명구조요원으로 돈을 벌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누구도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람은 커 나가면서 천변만화의 과정을 겪는다. 사주속의 오행으로 본 아들의 성품은 세심함과 추진력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세심함이 있으니 자기 사업을 할 때 무모한 일을 벌이지 않을 것이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듯 안전판을 만들고 한발 한발 나아가게 분명하다. 추진력은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벗어나는 힘을 줄 것이다. 세심함과 추진력이 서로 견제작용을 할 테니 큰 실수가 있을 수 없다.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사주가 있다. 그 운세를 올라타고 간다면 미래를 예약하는 것이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4	9		6	
	8			7				
		5	9			7	2	
4								1
		2	8		1	5		
	1							3
	6	9			8	4		
			7					3
1		4			5		8	

		1	6	8		7	2	3	
7				1		9			8
	9	8					7	5	
5									2
	1		7	6		2	5		4
		2			3				7
			1					9	
					4		5		
						8			

스도쿠 정답

2	9	8	6	5	3	7	1	4	9
6	1	8	9	7	2	4	8	5	3
3	5	7	8	1	6	9	4	2	7
8	6	2	5	3	7	9	1	8	4
7	2	5	1	9	8	2	6	4	3
8	1	9	2	6	1	4	5	7	3
1	2	4	8	6	5	3	7	9	1
5	7	1	3	2	9	1	8	6	4
2	6	4	8	1	7	5	2	3	9
9	8	6	7	1	5	2	4	3	7

문제 제공= 보너스